

조선유교성리학의 《천리인욕》설에 대한 분석평가

로 학 희

조선료리사상사는 료리도덕사상발전의 력사이며 낱고 반동적인 료리사상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료리사상의 투쟁의 력사이다.

조선유교성리학의 도덕수양론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천리인욕》설과 그 계급적본질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중세 우리 나라 료리사상발전사를 옳게 해명하고 체제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계급적으로 대립됨에 따라 도덕도 계급적성격을 띠고 서로 대립되게 되였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계급적리해관계를 떠난 그 어떤 보편적인 도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84페이지)

조선유교성리학은 인성론과의 긴밀한 련관속에서 료리도덕사상을 전개하였다.

인성론은 유교성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천도》와 《인도》를 련결해주는 사상이다. 성리학자들은 봉건료리도덕규범의 절대성과 합리성을 론증하기 위하여 《천도》와 《인도》를 결합시켰다.

종전의 유교에서 《천도》는 《천명》으로 불리워졌다면 성리학에서는 《천리》로 내세워졌다. 그에 의하면 인성은 사람의 내재적본질이고 우주의 리가 사람의 본성을 결정하며 사람의 본성은 료리도덕규범으로 표현된다. 때문에 료리도덕규범은 우주의 리와 사람의 본성에 고유한것으로서 우주는 천리에 부합되고 인성에 부합된다.

성리학자들은 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성선설의 립장에서 《성즉리》(성은 곧 리이다.)에 관한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인성과 우주자연과의 관계를 해명하려고 하였으며 천지 지성과 기질지성에 관한 량충론, 인성과 물성(만물의 본성)의 동이문제, 현실속에서 인성의 동이문제, 선악의 근원문제에 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조선유교성리학은 도덕수양에서 《천리인욕》설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천리인욕》설에서는 《5상》(인, 의, 례, 지, 신)의 도덕범주나 《5륜》(군신, 부자, 장유, 부부, 붕우)간의 도덕규범을 비롯한 모든 봉건도덕규범과 질서를 어길수 없는 객관적법칙으로, 《천리》로 인정하였으며 《인욕》을 《천리》와 대치되는것으로서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였다.

조선유교성리학은 《천리인욕》설에서 크게 두가지 견해를 제기하였다.

조선유교성리학의 《천리인욕》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천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인욕》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였다.

고려말—조선봉건왕조초기에 활동한 권근은 성선설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심(의식)이리를 구비하고있기때문에 선하며 그것이 악한것으로 되는것은 《인욕》(물욕)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천리》는 공적인것이고 선한것이며 《인욕》은 사적인것이고 악한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천리의 공으로써 인욕의 사를 가르고 통제하여야 한다.》(《삼봉집》 제10권 심기리편주, 리유심기)라고 하였다. 그에게서 《천리》는 봉건료리도덕규범이고 《인욕》은 그와 어긋나는 물질적욕망이며 행위이다.

권근은 《인욕》은 끊임없이 사람을 해치고 공격하기때문에 그 해독은 막심하다고 하

면서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홀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근신(경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천리》를 무시하고 《인욕》에 사로잡힌자들을 《공리》(공명과 리익)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권근의 《천리인욕》설은 봉건도덕규범을 절대화하고 신분등급질서를 합리화하며 인민 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말살하는 사상적무기로 통치계급에게 리용되었다.

16세기 성리학자인 김린후는 봉건유교도덕을 《천리》를 구현한 선한것으로 보고 《인욕》을 기질에 따르는 악한것으로 보면서 도덕수양에서 《천리》를 보존하고 기질지성으로부터 오는 《인욕》을 제거할것을 주장하였다.

리황은 《4단7정》론과 《인심도심》설을 리론적근거로 하여 사람의 성으로서의 4단은 리의 발이기때문에 《천리》에 부합되는것으로서 순선하고 사람의 정으로서의 7정은 기의 발이기때문에 《인욕》이 따른것으로서 선과 악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의 《천리인욕》설은 철저히 피착취인민대중에게 험벗고 굶주림을 참고 견딜것을 설교하는 금욕주의적인 견해였다. 그들은 이러한 《천리인욕》설에 기초하여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기 위한 방도문제를 제기하였다.

리황은 학문의 목적을 《수신》(자신에 대한 수양)에 두고 그 방도를 《경》(공경)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자신을 수양한 다음에 가정을 하나와 같이 할수 있고 가정을 하나와 같이 한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를 평정할수 있다.》(《퇴계집》 7권 차 건성학십도차, 대학경)라고 하면서 학문의 목적자체를 지식의 축적으로 본것이 아니라 도덕적수양에 의한 인격의 완성으로 보았다.

리황은 심이 인간의 성(인, 의, 례, 지)이나 정(희, 노, 애, 구, 애, 오, 욕)을 통솔한다고 보고 인간의 도덕적수양에서 중요한것은 인심을 어떻게 바르게 가지는가 하는데 있다고 리해하였으며 그 수양의 근본방도는 《경》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대체 사람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를 물론하고 오직 주경(경을 위주로 함.)하여야 한다.》(《퇴계집》 28권)라고 하였다.

리황은 《경》의 내적수양방도로서 《주일무적》을 주장하였다면 외적수양방도로서는 《정제엄숙》을 주장하였다.

물론 리황도 성리학자들이 주장한 《공리》에 대해서도 말하였지만 《신이 앞에서 말한 참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설도 경으로 시작하고 경으로 종결된다.》(《퇴계집》 6권)라고 함으로써 《공리》보다는 《경》을 인간수양의 근본방도로 더 중시하였다.

리황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수양방법은 인간의 성에 갖추어진 《천리》를 밝혀 그에 따라 행동하며 감각기관을 통한 외부세계의 사물현상에 대한 자극으로부터 모든 《인욕》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조선유교성리학의 《천리인욕》설에서는 다음으로 《천리》와 《인욕》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려말기 리색은 《천리인욕》설에 기초하여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것이 《성학》이라고 하였으나 《천리》와 《인욕》을 무조건적으로 대치시키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입, 귀, 코를 비롯한 감각기관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그로부터 나오는 《인욕》

은 사람의 본성으로서 그자체는 《성즉리》에 대치되지 않으며 다만 인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치나 과도한 검박이 리에 어긋난다는것이다.

리색의 이러한 견해는 불교의 극단한 금욕주의설교와는 달리 인간의 생존의 요구를 인정하여 보장할것을 주장한 측면에서 당시로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었다.

16세기 철학자인 리언적은 《천리》는 인간의 성에 선천적으로 구비되어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인욕》은 인간의 정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도덕적으로 악하기때문에 《인욕》을 극복하고 《천리》에 맞게 행동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사람의 정에서 출발한 모든 《인욕》이 다 악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오래 살기를 요구하고 잘살기를 요구하며 위태롭지 않기를 요구하며 편안하기를 요구하는것은 《인욕》에서 출발한것이지만 도덕적인 악으로 되지 않으며 《천도》에 맞는다고 하였다.

리이는 《천리인욕》설을 《인심도심》설과 결부시켜 일부 학자들이 《도심》은 《천리》이고 《인심》은 《인욕》이라고 하는것을 반대하고 《도심》은 《천리》이지만 《인심》에는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다고 하였으며 마땅히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는것은 《인욕》이 아니라 《천리》라고 하였다.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한원진은 《도심》이 《천리》의 발현이고 《인심》은 《인욕》의 발현으로서 《천리》와 《도심》은 선하며 《인욕》과 《인심》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원진이 《천지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사물은 시초에는 다만 선뿐이었다. 그중에서 악은 다 선으로부터 흘러간것이다. 천리에서 인욕이 있게 되었다. 마시고 먹는것, 남녀관계 같은것은 천리이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였을 때 욕심으로 흐른다.》(《남당집》 제35권 잡식)라고 한데서 명백히 표현되었다.

리이와 한원진의 이러한 견해에는 봉건통치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왕을 비롯한 부패한 봉건통치계급의 지나친 《인욕》을 견제하고 봉건제도를 유지해나가려는 중소지주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반영되어있다.

그들은 모두 수양에 의하여 기질을 변화시킬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인간용모의 곱고 미운것, 신체의 길고 짧고 부드럽고 딱딱한것은 변화시킬수 없으나 마음의 뜻은 변화시켜 암둔한자는 현명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못난자는 현인으로 만들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학문의 목적을 결국 개체를 완성하기 위한 수양에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체득하는것을 도덕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한원진은 《거룩한 황제나 영원한 왕이 정치를 하는것이냐 성인, 군자들이 학문을 하는것이냐 다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고 천리로 돌아가는것을 근본으로 한다.》(《남당집》 제53권)라고 하였다.

《천리》를 체득하기 위한 도덕수양방도로서 리이는 지경, 궁리, 력행을 주장하였고 한원진은 극기궁리, 독지력행을 주장하였으며 리언적은 성, 경, 정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리이와 한원진을 비롯한 일부 성리학자들은 《인욕》을 무조건적으로 악으로 규정하고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를 말살하는 금욕주의설교와는 달리 《인욕》중에서 사람의 본능(식색과 같은것)에 속하는것은 《천리》에 속하며 과도하면 사욕으로, 악으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유교성리학은 도덕수양론에서 《천리인욕》설과 밀접히 결부된 공과 사, 의와 리, 선과 악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성리학에서 공과 사, 의와 리는 《천리인욕》과 결부된 도덕범주로서 의와 공은 《천리》에 부합되며 리와 사는 《인욕》으로서 악으로 보았다. 다시말하여 이 견해는 《천리인욕》설을 더욱 심화시킨 리론으로서 《천리》에 부합되는 행동은 의로운것이고 공적인것이며 《인욕》에 따르는 행동은 리에 따른것이고 사적인것이기때문에 전자는 선하고 후자는 악하다는것이다.

14세기 성리학자 정도전은 공과 사를 사람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공적인것은 의로운것이고 사적인것은 리속을 추구하는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대체로 사람의 행동은 공적론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적감정에 부합되는것이다.》(《삼봉집》 권5)라고 하였다.

이것은 정도전이 사적인 리익을 버리고 임금에게 《충》을 다하는 길이 공적도덕규범에 맞는 행동으로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권근은 《천리》를 공적인것이고 선한것이며 《인욕》을 사적인것이고 악한것이라고 보고 《천리의 공으로써 사를 가르고 통제》할데 대한 도덕수양론을 내놓았다.

공과 사, 의와 리, 선과 악의 견해는 16세기와 17세기 성리학자들에게서도 제기되었다.

리언적과 송시열은 《천리인욕》설과 《공사》설을 결합시켜 《천리》에 부합되는것은 공적인것이고 선하며 《인욕》에 기초한것은 사적인것이고 악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봉건적신분등급제도와 가부장적통치질서를 료리도덕적으로 합리화한 봉건유교도덕원칙을 지키는것이 《천리》에 따른것이고 공적인것으로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되며 《인욕》에 따라 행동하는것은 사적인것이고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 사, 의, 리문제는 16세기 성리학자인 리황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리황은 리와 사의 도덕범주를 보통 말하는 리, 사의 개념과 구별하면서 사는 공과 구별한것이며 리는 의와 구별한것이지 《종지 못한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사와 사욕, 리와 리욕을 구별하여 《사는 자기가 소유한다는것이지 사욕이 아니며 리는 리익에 맞게 한다는것이지 리욕이 아니다.》(《퇴계집》 제19권)라고 하였다.

리황의 이러한 견해는 철저히 봉건지배계급의 사적소유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변호하기 위한것이였다.

이와 같이 조선유교성리학의 《천리인욕》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짓밟고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반동적착취계급의 사상으로 사회발전에 해독적작용을 놓았다.